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814호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경제종합]
삼성·SK 반도체 자료
美 정부에 제출 완료
04

코스피 2962.46 (+2.26)
코스닥 1008.68 (+6.18)
금리(국고채 3년) 1.865 (-0.041)
환율(원·달러) 1177.20 (-5.90) 〈9일〉

마그네슘·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시급

'제2 요소수 사태' 오나

국내 광물 90% 이상 해외 의존
특정국가비율 中이 최고 높아

요소수 이어 마그네슘도 품귀
中 마그네슘 공급도 줄여 긴장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부터 요소수, 마그네슘, 희토류 등 원자재 수급 문제에 따른 후폭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은 10대 무역대국 중 하나지만 제조 및 수출을 하기 위한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5~6위권 광물 소비국이지만 수요 광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 이를 재 가공, 조립 후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그네슘·희토류·리튬 등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자원 외교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부각되고 있다. 해외 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최근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자원 수출 금지에 따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젤(경유) 차량은 물론 우리 산업계에서 사용량이 높은 요소의 수입 중단에 따른 요오수 품귀 현상은 물론 마그네슘과 희토류, 리튬 등 필수 원자재 수급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필수 원자재의 수입처 다변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품목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31.3%)에 이른다. 이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1850개) 이상이다.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발 공급망리스크로 수입선이 막힐 경우 대체선 확보가 쉽지않다. 제2 요소수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필수 원자재의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로 광물·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자원 공급망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희토류 같이 확보 경쟁이 치열한 자원을 무기로 삼으면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게 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원 무기화'에 나선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 다음은 마그네슘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중국이 마그네슘 공급을 줄여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도 중국산 마그네슘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중국에서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제련소들이 조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가동을 줄이자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량은 반토막 났다.

중국은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량을 빨리 회복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의 자동차 부품 공급사들은 중국산 마그네슘에 크게 의존한다. 마그네슘은 완성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차량 경량화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필수적이다.

◆공급망 차질…천연 자원 가격 인상 우려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 세계 경제 활성화에 따른 제품 생산 증가로 자원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레미콘 공장 주차장에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요소수 공급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새 홍보창구 메타버스 타는 유통가 단발적 이벤트 그쳐… 성과는 미미

이용자 95%, 10대 이하 청소년들
업계서도 큰 매출 기대 안하는 듯

메타버스(Metaverse)가 유통가의 새로운 홍보창구로 떠올랐지만 성과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사실상 단발적인 이벤트에 그칠 뿐, 현시점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홍보 효과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메타버스를 이용한 유통가의 마케팅은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에서의 홍보 ▲AI 모델 기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9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AR 아바타 서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기존 쇼핑몰 월드를 '현대백화점면세점 월드'로 새로 꾸미고 무역센터점 오픈 3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CU는 지난 7일 빙그레와 마케팅을 진행하며 아울러 'CU제페토 지하철역점'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CU가 이용한 제페토는 얼굴인식과 AR, 3D 기술을 이용해 3D 아바타로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글로벌 가입자는 약 2억 명이며 사용자의 90%는 국내가 아닌 해외 접속자, 80%는 10대다. 가장 활발히 제페토를 활용한 CU는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CU는 제페토와 콜라보한 후 새로운 맵을 공개할 때마다 이벤트를 열었다. 제페토용 캐시를 랜덤으로 획득 할 수 있는 콜라보 상품인 CU 제페토 삼각김밥은 9월 출시 일주일만에 학교 및 학원가 입지 점포들의 판매량 3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유통 관계자들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벤트에서 큰 매출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30% 더 빠른 모바일 D램 개발

'LPDDR5X' 14나노로 생산
소비전력 전작比 20% 개선

삼성전자가 또다시 D램 '초격차'를 벌리고 나섰다. 모바일향 DDR5 규격 D램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삼성전자는 LPDDR5X(사진)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선단 미세 공정인 14나노로 생산한다.

세계 최초다. 2018년에도 처음 8Gb LPDDR5 D램을 개발하며 업계를 선도했던 바, 이번에도 새로운 기술을 처음 소개하며 메모리 반도체 업계 리더십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LPDDR5X는 한층 향상된 '속도 · 용량 · 절전' 특성으로 한다. 5G, AI, 메타버스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첨단 산업에 최적화했다.

속도는 이전 세대인 LPDDR5보다 1.3배 빠르다. 6.4Gbps에서 8.5Gbps로 30% 이상 개선했다.

선단 공정인 14나노를 적용하면서 효율과 용량도 대폭 늘렸다. 소비전력 효율은 전작 대비 약 20% 개선됐다. 특히 삼성전자 14나노 D램 공정의 장점을 활용해 용량을 대폭 늘렸다. 단일칩 용량을 16Gb로 개발한 것. 이를 통해 모바일 D램 단일 패키지 용량을 최대 64GB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부터 글로벌 IT 고객과 기술 협력을 통해 LPDDR5X D램을 신규 라인업으로 빠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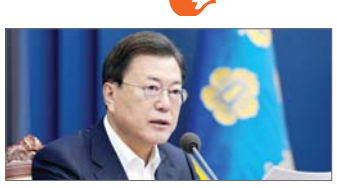
LPDDR5X는 내년부터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부터 탑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이 고성능 메모리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 삼성전자 갤럭시 차기작 뿐 아니라 샤오미 등 브랜드도 고사양 모델 출시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서버 업계나, 계속 확대되는 전장 부문에도 LPDDR5X 보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설계팀 황상준 전무는 "최근 증강현실, 메타버스, AI 등 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첨단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이번 LPDDR5X를 통해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서버, 오토모티브 시장까지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및 전력 효율 개선을 통해 첨단 모바일 D램 라인업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D램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구축해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 대통령, 12일 APEC 화상 정상회의…코로나 극복·경제 회복 논의 /사진 뉴시스

▲ 대기업·중견기업 '오너 일가' 30명 탈세조사 착수

▲ 정부, 11일 임시 국무회의서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 의결

▲ 말 뒤집은 美연준…"中헝다 위기, 세계 금융 위협"

▲ 윤석열, 다자·양자 대결서 이재명에 10%p 이상 앞서 /사진 뉴시스

▲ 일본 소형로켓 입실론 5호기 발사 성공…"위성 9기 탑재"